

평화드림 오만리, 허요림

5개 국가 10개 도시를 12일간의 기간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있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여 독일 그리고 체코, 폴란드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번 여정은 한국과 같이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을 경험한 국가들로 이루어졌기에 더욱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전쟁의 고통에 대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게 깨닫게 되었다.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평화의 소중함과 현재 한반도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버스킹을 하는 동시에 평화 시그니처 운동 (Peace signature movement)을 전개했다. 처음 도착한 나라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다. 도착 후 두번의 버스킹과 서명을 진행하였는데 처음 버스킹을 할 때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마음안에 생겼다. 그 이유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으며 심지어 우리만의 공간에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마저 들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심정이었다. 두번째 버스킹 때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는 마음이 하나로 합하지 않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졌거나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날 받은 서명은 30명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명 받아야 할 인원은 2000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단이 준 생각이며 각자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다음 날 이준열사께서 순국하신 헤이그에 도착했다. 이준열사의 묘적지를 방문하며 그분의 생애를 문자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보게 되었다. 그분은 대한조선이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한국의 자주독립에 대해 호소함으로 인해 주변국가들의 동참과 공감을 이뤘내려했다. 그러나 그의 임무는 당시 한국의 위상과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임무였다. 맡겨진 임무가 불가능할지라도 도전해야만 했던 그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불가능할 지라도 평화를 위해 도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임무가 불가능할 지라도 기독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네덜란드에 오셨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헤이그에서 버스킹과 서명을 진행했다. 그날은 관심없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다가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울컥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신 것이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라도 동참하고 귀기울인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생각한다.

네덜란드를 떠나 독일에서는 하노버를 거쳐 베를린, 비텐베르크, 라이프지히, 드레스덴 총 5개의 도시를 방문하였다. 독일에서 약 4년간 살았기에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과 다른점이 있다면 새로운 시각과 목표를 가지고 독일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독일 남쪽 바덴바

덴 지역에서 살았기에 동부나 북쪽으로 가기 위해선 교통의 중심지인 하노버를 지나가야 했다. 이번 하노버의 방문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였기에 색다른 느낌을 들었다. 하노버에서는 심자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수 정예만 찬양 하고 모든 인원은 서명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서명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퍼포먼스와 서명 받는것을 진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한가지 아쉬운점은 누구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어떤 이는 마치 여행 온것 같은 행동과 버스킹 하는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같은 소속이 아닌 타인 처럼 멀찍이 떨어져있는 모습이 못내 아쉬웠다.

하노버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지붕이 폭격으로 날아간 Aegidien Kirche 아에기디엔 교회였다. 교회안에 있는 동판에는 전쟁으로 얼마 만큼의 인원이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었다.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에기디엔 교회를 통해 전쟁을 기억하며 과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한 것이다. 평화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만이 평화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전쟁의 흔적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한다면 평화의 참 의미와 평화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노버를 떠나 베를린으로 향했다. 베를린도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학생 신분으로 왔다면 이번엔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이다. 돔교회에서 김경화 전도사님과 팀을 이루어 남북한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대한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12시까지 서명을받고 돔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했지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넘어 우리 둘은 돔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12시가 넘어 참석하려면 입장료를 지불해야 했다. 사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까도 생각했지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후 서명이 다시 진행되었고 서명을 진행하는 와중에 생각보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현재 북한과 전쟁중인 아시아에 있는 작은나라,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은 이들이 한국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오후에는 평화포럼 두번째 세미나를 Hochmeisterkirche 에서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김상국 교수님께서 한반도 안보와 독일통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셨다. 독일 통일의 상황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해 보게 되는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통일 독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수 있으며 앞으로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셨다.

베를린을 지나 라이프지히를 가기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던 비텐베르크를 잠시 방문하였다. 루터는 자신의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저 당시 교회내부에 만연했던 가짜 우상들과 면죄부에 대한 항의가 주목적이었다. 비텐베르크는 작은 도시였다. 이러한 작은 도시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유럽전역으로 퍼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작은 씨앗이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평화의 발걸음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가 한발씩 전진되어 도달할 수 있을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 도시, 라이프지히를 향해 출발했다. 이곳에서 두번의 버스킹이 있었지만 이날의 버스킹

은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서명수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명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프지히를 지나 독일의 마지막 도시인 드레스덴에 도착했다. 이 도시도 한번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기로는 드레스덴은 차가운 도시로 기억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당시 시험으로 인해 긴장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방문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기에 활기가 가득한 도시,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로 비쳐졌다. 드레스덴의 Schlossplatz 슐로스 플라츠 라는 광장에서 버스킹과 서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평화에 관련하여 서명을 받을 때 나와 함께 토론했던 한 여자다. 그녀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이러한 싸인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우리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싸인을 거부했다. 나는 평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와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커다란 것으로 변할 수 있으며 그것이 평화로 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해주었는데 아마 하나의 씨앗을 심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 것 같다.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남북한의 평화에 대해 생각하게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겨진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나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싸인은 거부하며 떠나갔다. 언젠가는 그녀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평화를 생각하며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가였던 안 후스를 만나러 체코 프라하로 떠났다. 안 후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감리교단을 성장시켰던 존 웨슬리도 결국 안후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후스의 기념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팀만 있었기에 관리자 분께서 친절하게 반겨주셨다. 체코에 살고 있는 목회자의 자녀의 말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동안 코로나와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기에 반가워 하지 않으셨을까. 체코 프라하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던 도시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경관과 관광도시로서의 프라하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는 안 후스의 도시를 출발하여 약 7시간을 버스로 아우슈비츠가 있는 폴란드로 이동했다. 아우슈비츠는 영화와 책을 통해 본적은 있지만 실제로 가본적은 처음이다. 수용소를 보고 그저 처참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인간이 얼마나 잔악해 질 수 있을까? 2차대전이 끝나고 난뒤 독일은 아우슈비츠에있는 수용소를 없애고 떠나려고 했지만 다행히 연합군이 먼저 당도해 그곳이 보존될 수 있었다. 아우슈비츠를 보면서 북한의 수용소가 떠올랐다. 군인으로 복무할 때 들었던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정치 수용소가 2차세계대전의 수용소 보다 더 끔찍한 곳임을 증언한 것을 들었다. 이전까지 북한 수용소에 대해 알고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고 난뒤 북한의 수용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를 향해 가는 와중에 은희곤 감독님께서 북한의 실태와 우리가 어떤시각을 가지고 평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셨다. 서로다른 이념과 오래된 분단으로인해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반도의 평

화를 위해 어떻게해야 할까? 더욱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핵을 포기하더라도 체제가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신뢰의 토대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신뢰란 무조건적으로 주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어떻게 신뢰의 관계로 형성되며 발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어지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도착지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전의 일정을 정리하고 그동안 달려왔던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 12일의 여정은 귀한 시간이었으며 경험이었다. 특별히 많은 만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북한의 실태와 평화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버지가 북한선교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기에 전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진지하게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독일과 폴란드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격고싶지 않는 전쟁의 흔적과 고통을 기억함으로 평화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드림오만리는 6.25 전쟁과 같은 다시 격지 말아야할 역사와 현재 한반도가 격고있는 전쟁의 상황을 알림으로서 세계에 평화 통일을 위한 동참을 이끌어 냈던 포럼이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여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은희곤 감독님께 감사드린다.